

순천만국가정원에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00㎡ 규모 무궁화 정원서
15일 광복절까지 나라꽃 축제
전국 출품 분화 700여점 전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국가정원에 조성된 100㎡ 규모 무궁화 정원에서 '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열린다.

무궁화 축제는 국가정원 서원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뒤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축제장에서는 전국에서 출품한 700여 점의 무궁화 분화를 만날 수 있다.

올해 33번째 열리는 축제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다.

순천만 WWT 습지부터 아바타 정원, 정원역 광장까지 국가정원 서원을 둘러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출품한 무궁화를 두고 품평회



오는 15일까지 '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700여 점의 무궁화 분화가 전시돼있다. <순천시 제공>

를 열어 올해 우수작으로 뽑힌 무궁화 분화도 감상할 수 있다.

전국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산림청이 주관하

는 행사이다.

지난 1991년 시작한 뒤 서울, 세종,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습지센터 안팎에서는 무궁화 분화 전시뿐만 아니라 무궁화 볼펜 만들기, 인생 네 컷, 무궁화 품종 해설 등 체험도 운영한다.

국가정원 인근 오전그린광장(무료 이용)에서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4-15일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한다.

14일 오후 8시에는 경지밴드의 국팝밴드 공연이 펼쳐지고 15일 오후 7시에는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 70명의 화려한 군무가 무대에 오른다.

노관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장(순천시)은 "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이번 무궁화 축제로 각양각색의 무궁화와 박람회장의 수많은 여름꽃이 어우러져 여름 정원의 특별한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나라꽃인 무궁화가 가진 매력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야외·현장 근로자 열음 목걸이 등 냉방용품 지원



보성지역 자원순환 근로자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열음조끼와 열음 목걸이 등을 착용한 모습.

보성군은 최근 무더위 속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고자 야외·현장 근로자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냉방용품은 자원순환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이들은 환경자원사업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팀 등 소속이다.

보성군은 열음 조끼와 식염 포도당, 열음물, 열음 목걸이 등을 지급했다.

또 폭염 기간 야외 근로자들이 햇볕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독려했다.

보성군은 균정 발전 제안 시책의 하나인 '손 조심 스티커'를 만들어 근로자들이 쓰레기를 거두가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붙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무더위에 군민과 지역의 생활환경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고단함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 1200명 돌파

수도권·호남권·영남권 순 많아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1200명을 넘겼다.

여수시는 지난 1월1일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여수에 기부금을 낸 참여자가 이달 초 1200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한 1201명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10명이었다, 나머지 1191명은 100만원 미만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경기가 436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호남권이 313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남권 278명, 충청권 127명, 제주 29명, 강원 18명 등 순이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4일 경기 일산컨텍스에서 열리는 '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고향사랑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65개를 지정해 마련했다.

기부자들은 여수 특산물인 갯김치와 생선 꾸러미, 건어물 등을 답례품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준 모든 기부자에 감사를 전한다"며 "기부자들의 귀한 애정에 부응하도록 지역발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에서 생산된 원황배가 이달 미국으로 77t 수출된다. 수출용 배를 선별·포장하는 모습.

곡성 배 미국 수출길...8월 한달 77t

하반기부터 호주·태국도 수출

곡성 배의 올해 미국 수출이 시작됐다. 이달 수출을 시작한 곡성 배는 조생종 원황 배 품종이다.

총 77t, 4억2000만원 상당 물량이 미국으로 건너간다.

배는 곡성지역 신선 농산물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이다.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회원 농가 257가구가 생산하는 배는 모두 수출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공동선별을 거쳐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수출 비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 수출 전문단지 지정 받고 '최우수 수출 단지' 인증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410t의 곡성 배가 미국으로 수출

됐다.

이달 8일 곡성군은 호주와 태국 등 2개국의 수출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정돼 이들 국가의 수출검역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호주와 태국 수출도 앞두고 있다.

곡성군은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물류비와 수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구매 담당자 품평회 개최 등을 펼치고 있다.

품목별, 수출구별 필요 인증 취득을 돕고 수출 포장재 개발, 수출용 소모품 8차제 구입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명품 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맞춤형 관측을 통해 새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호우피해 구례읍·마산면

570억 들여 침수 예방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겪은 구례군이 구례읍과 마산면에서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벌인다.

구례군은 지난 8일 구례읍·마산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구례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겪었다.

구례군은 지난 2020년 환경부 주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도시 침수 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구례읍 403억원과 마산면 167억원 등 사업비 570억원(국비 포함)이 들어간다.

구례읍에는 배수펌프장 1개소, 수문 펌프 2개소가 설치되고, 우수관거(雨水管渠) 8.7km 구간을 개량하고 신설한다. 마산면에는 우수관거 7.8km 개량·신설 공사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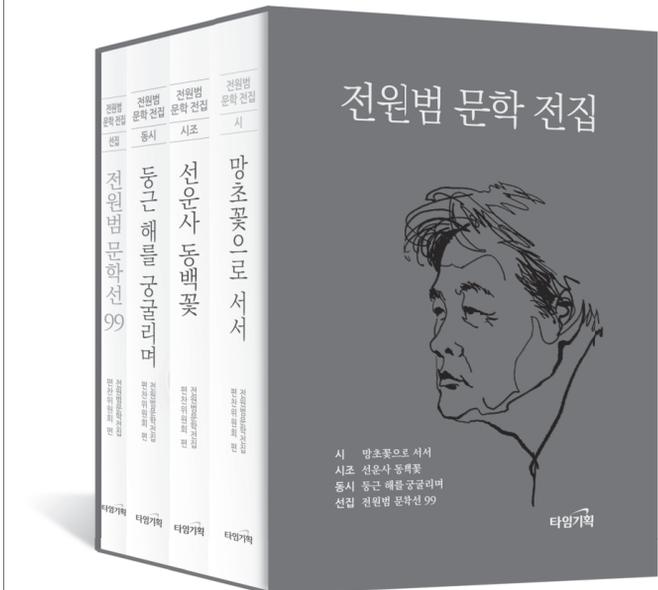
이번 설명회는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별교새마을금고 청소년 시설 교육용품 전달



보성새마을금고(이사장 송기준)와 별교새마을금고(이사장 정국)는 지난 11일 보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찾아 500만원 상당 교육용품을 전했다. <보성새마을금고 제공>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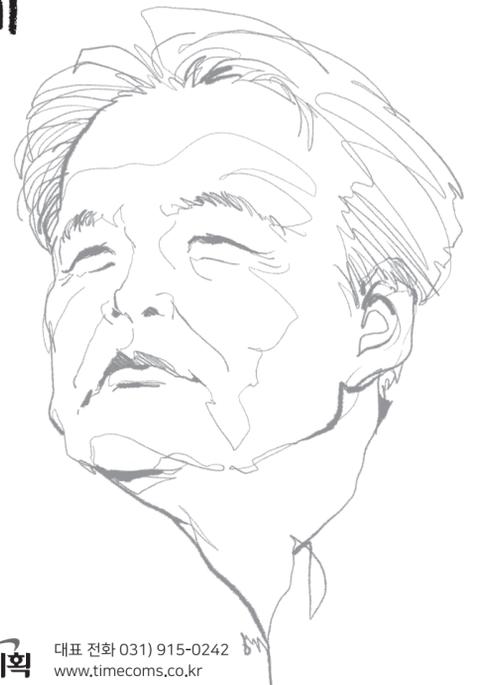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